

## IV. 日本 動靜

일본 개혁을 위한  
민간 싱크 탱크의  
역할을 주장한 칼  
럼

### 요청되는 民間 싱크 탱크의 '지혜'

#### ○ 시급한 專門 民間 政策 研究 機關

- 史上 最惡의 불황에 허덕이는 일본은 정치·경제·사회에 걸친 총체적인 개혁이 시급해지면서 민간 싱크 탱크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음
- 일본형 정책 형성은 정보를 독점한 폐쇄적인 중앙 관료에 일임되어 있었기 때문에, 複數의 정책 제한 중 최선을 선택하는 '민주적' 정책 형성 문화가 미숙함
  - 더욱이 '중앙 각부서의 기득권 확보 차원에서의 정책 발상은 21세기형 일본 개혁을 오히려 혼미시키고 있음
- 자유로운 정책 연구가 보장된 민간 非영리 싱크 탱크의 '지혜'가 국가적 위기를 탈출하는 유일한 해결책임
  - 이를 위한 경제, 법률 및 재원적 지원이 시급함

(「日本經濟新聞」, 11.1)

오사카 APEC을  
계기로 가속되는  
일본기업의 아시  
아 진출

### APEC 自由化로 가속되는 아시아 진출

#### ○ APEC의 자유화를 선도하려는 일본 기업

- 오사카 APEC을 계기로 본사 기능을 아예 동남아로 이전시키는 등 일본 제조업계의 아시아 진출이 일층 더 가속화되고 있음
  - 史上 최초로 住友商事는 전자 부품 사업의 本社 기능을 연내에 국내에서 전면적으로 싱가포르 이전할 방침임
  - 丸紅, 富士銀行 등 4개 그룹은 내년도 APEC 가입이 확실사되는 베트남 및 미얀마에 이달 말 대대적인 투자 사절단을 파견함
- APEC의 자문기관인 PBR(太平洋 Bussiness Forum)을 주축으로 일본기업은 역내 무역·투자 자유화를 주도하기 위해 국경을 초월한 사업 확대를 적극적으로 전개중임
  - 일본 제조업은 동남아에서 「一國一工場」 體制를 목표로 생산·전략 거점 확보를 더욱 강화시킴

(「日本經濟新聞」, 10.31)

### 豫見되는 中國의 食糧 危機

다가올 中國의 食糧 危機에 대응하여 中國 정부의 자체적 노력과 日·中 兩國의 긴밀한 協력이 요구됨

#### ○ 1억 톤 이상의 食糧 不足 豫見

- 12億 人口에 食糧을 제공하는 中國 農業의 動向은 中國 자체의 食糧 安全 保障 뿐만 아니라 國際 穀物 市場을 통하여 전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침
- 日本 海外協力基金은 中國政府 農業部와 공동으로 中國 食糧 需給을 2010년까지 省別·穀物別로 예측함
  - 예측 결과, 2010년에는 1억 3,600만 톤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
  - 현재 세계의 곡물 무역량 2억 2,000만 톤, 중국의 곡물 무역량 1,300만 톤에 비하면 엄청난 부족량임

#### ○ 中國 정부의 政策 努力이 중요

- 耕地 面積 유지, 單位當 收穫量 向上, 유통망 整備, 農業經營 改善 등 중국 측의 정책적인 노력에 의해 食糧 危機를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됨
- 중국 정부의 정책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2010년에 식량 부족량을 6,500만 톤까지 줄일 수 있을 것임

#### ○ 日·中 협력으로 문제 해결

- 다가올 中國의 食糧 危機에 대하여 日·中 양국의 허심탄회한 論議와 긴밀한 相互 協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
- 품종 개량과 농업 기술의 보급, 지역간의 인프라 정비 등에 일본 측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

(「日本新聞新聞」, 10.31)